

# 참빛이신 그분을 뵈다

클 흥기령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고 말하였다”(마태 27,19).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인이면서도 꿈을 꾸고 예수님을 의인, 곧 ‘디카이오스’(δικαιος)라고 부른다. 그리스어 디카이오스는 ‘모든 의를 실현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고백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그를 성경 속에서 꿈을 통한 영적 치유의 정수를 보여 주는 인물이라 하겠다.

시작에 앞서 널리 퍼진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한다. 첫째, 그의 꿈은 악몽이 아니다.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았기에 수난에 동참하겠다는 고백이며 나아가 군중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에 대한 통탄이다. 여기에 두려움은 없다. 명료한 알아차림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이 꿈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꿈이 아니다.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인류 구원 사업을 방해하려는 말이 아니다. 꿈을 통해 얻은 내적 확신을 우유부단한 남편과 나누려 한 노력이다. 빌라도가 그 자신에게 예수님을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깨달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 꿈에서 본 것

성경은 꿈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지 않는다. 후대에 이르러 여기에 관심을 보인 두 가지 자료가 등장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오른 성아우구스티노수도회 안나 가타리나 에메릭 수녀(1774-1824년)의 환시와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 성경이다.

후기 묵시 문학 전승에 따르면 빌라도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이다. 그는 꿈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와 주님 탄생, 공생활의 주요 장면 등이다.

에메릭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잔인한 적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형상이었다. 클라우디아는 그분의 엄청난 고통과 인내와 한없는 사랑을 보았으며 성모 마리아의 고뇌와 완벽한 순명도 보았다”(『그리스도의 수난』, 19장 중에서).

깨어난 그는 성난 군중이 한 남자를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오는 행렬을 보게 된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예수님”(앞의 책)을 알아본다.

도레의 그림에서도 빌라도 아내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빛에 둘러싸여 계시다. 요한 복음사가는 강생을 두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1,9)라고 적었다. 빌라도 아내의 꿈은 이 구절을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의 참빛 그 자체이심을 본 것이다.

### 심리적 변화

에메릭 수녀와 도레의 그림은 둘 다, 빌

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세계를 향하여 뜨고 있기에 정신세계와 그 상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시선은 무의식에 있는 열등감뿐 아니라 잠재력까지도 의식과 통합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은 이 과정을 ‘내면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선물한다. 곧 내적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이다.

빌라도의 아내는 깨어난 뒤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한다. 정치가 금하는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재판정에 앉은 남편에게 충고도 한 것이다. 당시 로마 귀족 사회의 여성들은 철저히 남편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에게 충고하거나 공무 집행 중인 공간을 출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빌라도의 아내는 꿈꾼 뒤 더는 최고 권력자의 아내라거나 로마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외적 자아인 페르소나만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를 망설임 없이 넘어선다.

### 치유: 영적 알아차림

꿈에서 예수님을 뵈고 구세주의 빛을 알아본 빌라도의 아내는 첫째, 자신의 영적 어둠을 끊어 낸다. 꿈을 꾸기 전 그의 영적 세계에는 온갖 로마 신들이 살고 있었다. 신화가 보여 주는 신들은 인간의 한계를 육체적으로만 초월했을 뿐 영적으로는 대단히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들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지배적인 이유이다.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 신들의 불완전함에 의존했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거듭나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선다.

도레의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은 빌라도 아내의 얼굴에 부드럽게 반사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불완전함을 굽어보기에 이제 그는 자애로운 신적 은총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영적 치유를 마태오 복음서는 이렇게 요약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4,16; 참조: 이사9,1).



‘빌라도의 아내의 꿈’, 귀스타브 도레, 1874년.

두 번째 치유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깨고 성모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일어난다. 에메릭 수녀의 환시에서 그는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성모님께 커다란 아마포를 전달했다(「그리스도의 수난」, 23장 참조).

재판장의 아내가 ‘죄수’로 끌려온 사람의 어머니에게 왜 그런 귀한 물건을 전달했을까? 또,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모님을 수많은 여성 속에서 어떻게 알아본 걸까? 이는 영적 알아차림이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아본 데 그치지 않고 성모님께서 그분을 온전히 믿은 첫 사람이심을 내적

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뒤 성모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건네받은 아마포로 예수님에게서 성혈을 닦으셨다고 한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 천을 쓰시는 성모님을 보고 그분께서 자신의 봉헌을 기꺼이 받아 주심을 두 눈으로 확인한다. 당신 아들을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넘긴 장본인의 아내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도레의 성경은 이 꿈 장면의 오른쪽에,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는 베드로 사도를 성모님께 눈길을 고정한 모습으로 그렸다. 빌라도 아내의 내적 시선은 베드로의 이 시선을 공유함으로써 자신 또한 성모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때가 바로 그의 영적 치유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

---

**홍기령 데레사**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원 여성학과에서 ‘여성주의 정신분석학’, 주제통합과정에서 ‘21세기 행복한 사회인’을, 한국 예수회센터에서는 꿈과 영적 치유에 대해 강의했다.